

배우 설경구 “영화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출연 학폭 가해자 아버지 ‘강호창’ 역 맡아

“일단 전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이전 그냥 경험해보지 않고 말하는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저도 막상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게 참 공포스러운 거죠.”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감독 김지훈)에서 배우 설경구(55)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아버지 ‘강호창’을 연기했다. 변호사인 강호창은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를 받는다. 아들 한결이 문제로 얘기할 게 있다고. 그렇게 강호창과 함께 몇몇 아이들의 부모가 학교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한결이의 담임 교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한 아이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 시도를 했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유서엔 이 자리에 있는 부모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강호창은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게 나선다.

25일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만난 설경구는 “머리로는 정당한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겠지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모르겠다. 그래서 무섭다”고 했다.

영화는 강호창의 시점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는 제목 그대로

로 가해자 부모에 관해 다루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 영화 메인 홍보 문구가 이렇다. ‘자식이 괴물이 되면, 부모는 악마가 된다.’ 이 영화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고야 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가 수십년 세월에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의 단면을 상기한다. 설경구는 “영화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겠지만, 꾸준히 건드릴 순 있다”고 했다.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당신 자식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겠다’고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는 이 영화가 “관객에게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묻는 작품이 아니라 악마가 돼가는 부모를 고발하는 영화”라며 “부모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고민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호창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애끓는 부정(父情) 탓이다. 설경구도 자식이 있는 아버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은 아버지로서 경험한 것들이 강호창을 연기하는 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추측하게 된다. 그러나 설경구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과 강호창을 연기하는 건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나도 부모

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기본 바탕이 됐을 순 있지만, 나 개인을 강호창에 대입하진 않았다. 시나리오에 충실해서 오직 강한 결 아빠 강호창으로서 상황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이번 작품엔 설경구 외에도 천우희·문소리·고창석·강신일·김홍과 등 연기력 좋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특히 문소리와는 ‘스파이’(2013) ‘오아시스’(2002) ‘박하사탕’(2000) 등에 이어 또 한 번 호흡을 맞췄다. 설경구가 가해자의 아버지 역할, 문소리는 피해자의 어머니 역할이었다. 평소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절친한 동료 사이이지만 이번 영화에선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문소리가 연기하는 피해자 어머니 역이 슬픔을 내내 머금고 있는 역할이라 쉽게 말을 걸기 어려웠다고 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감히 말을 못 붙였죠. 그걸 지켜줘야 할 것 같았어요. 간단한 대화 외엔 사적인 대화 안 했어요. 그게 저의 호흡이예요. 좀 이상한 호흡이죠.”

‘니 부모 얼굴이 보고싶다’는 출연 배우 중 한 명인 오달수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사태에 휘말리며 5년만에 개봉하게 됐다. 지난해 말에 개봉 예정이었던 ‘킹메이커’는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올해 초에 개봉했다. 영화 ‘아차’도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넘어가 이달 공개됐다. 설경구는 이렇게 올해 4개월 간 영화 3편을 내놓게 됐다. 데뷔 이후 처음 있는 일이



있다. 설경구는 올해 개봉할 영화가 더 있다. “정신 없다”며 “어서 빨리 영화 개봉 현장이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극장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서 빨리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요. 정상화 될 거라고 봐요. 될 겁니다.”



박호산·예수정·김수진, ‘멧돼지사냥’ 출연

배우 박호산, 예수정, 김수진이 MBC TV ‘멧돼지사냥’에 출연한다.

27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 수상작 ‘멧돼지사냥’은 캐스팅을 확정 짓고 촬영에 돌입한다.

‘멧돼지사냥’은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멧돼지 사냥을 하는 날 실종 사건이 벌어지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독특한 구조와 인간이 가진 극한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웃소매 붉은 끝동’ ‘내가 가장

했을 때’ 송연화 PD가 연출을 맡는다.

박호산은 멧돼지를 잡으러 간 뒷산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와 맞닥뜨리는 ‘영수’를 연기한다. 예수정은 화제로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손주와 사는 ‘옥순’ 역을 맡는다. 김수진은 영수의 아내 ‘재정’으로 분한다.

제작진은 “존재감만으로도 든든한 캐스팅이다. 싱크로율은 물론 배우들의 시너지도 놓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올 하반기 첫 방송.

‘군검사 도베르만’ 안보현 “타이틀롤 부담 컸지만 성장”

“작품을 떠나보내는 게 어렵다”

배우 안보현이 tvN 월화극 ‘군검사 도베르만’ 종영 소감을 전했다.

안보현은 27일 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작품을 떠나보내는 게 어렵다. 성장할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부담이 컸지만 작가, PD님과 고민을 나누며 노력했다”며 “스태프, 동료 배우들, 시청자들에게도 감사하다. 한 주의 시작을 ‘군검사 도베르만’과 함께해 줘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종영한 ‘군검사 도베르만’은 돈을 위해 군검사가 된 ‘도베르만’(안보현)과 복수를 위해 군검사가 된 ‘차우인’(조보아)이 군대 내악을 타파하고 진정한 군검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도베르만과 차우인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벌인 ‘노화영’(오연수)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최종회는 전국 유료가구 기준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안보현은 첫 타이틀롤을 완벽

하게 소화해 호평받았다.

그는 “최초로 시도하는 군 법정물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도베르만은 선과 악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인물이다. 저 자신을 도베르만에 담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점점 도베르만 그 자체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성장한다.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모습이 멋있었다”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노태남’(김우석) 추격씬이었다. 그는 “6회에서 밀항하는 노태남을 찾기 위해 선착장에 갔다.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제언했다. 실제로 너무 추운 날이어서 큰마음 먹고 결정했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동료 배우들과 호흡은 완벽했다. “법무실 시구들이 또래 친구들이다 보니 정말 즐거웠다. 서로 모니터링 해주고 재밌는 장면이 있으면 SNS에 올리기도 했다”며 “선배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줬다. 캐릭



터 방향성도 함께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보현은 “평생 잊지 못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밌었다”며 “군검사 캐릭터는 처음인데 재밌게 봐줘서 감사하다. 초심 잃지 않고 좋은 연기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다니엘, 신곡 ‘레디 투 라이드’ 콘셉트 트레일러 공개

내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 통해 발매

가수 강다니엘이 컴백을 예고했다.

지난 26일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엠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신곡 ‘레디 투 라이드(Ready to ride)’ 콘셉트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엔 ‘12.10.2996’이라는 날짜와 함께 미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긴장감 넘치는 내레이션과 SF 영화를 방불케

하는 스케일의 영상미가 신곡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레디 투 라이드’는 유니버스가 열아홉 번째 발매하는 신곡이자 ‘아우터스페이스(Outerspace)’(Feat. 로꼬) 이후 강다니엘과 두 번째로 협업한 음원이다.

한편, 강다니엘의 ‘레디 투 라이드’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혜은이 “두 번 이혼 후…1년 반 은둔 생활”



가수 혜은이가 두 번 이혼 후 속내를 드러냈다.

혜은이는 26일 방송된 KBS 2TV 예능물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에서 배우 박원숙, 김경, 이훈과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했다.

이훈은 “살다 보면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나.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었다. 혜은이는 “처음에는 애들 때문에 견뎠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 탓이라는 생각이다. 더 알아보고 준비됐는지, 잘 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 그냥 했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혜은이는 두 번 이혼을 겪었다. 2019년 배우 김동현과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엄청난 빛이 생겨 아직도 갖고 있다. 앞서 그는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방송에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갖고 있다. 그동안 100억 없었다. 50평짜리 아파트 5채, 얼마 집까지 팔았다”고 털어놨다.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1년 반 동안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았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괴감이 들어 힘들었다. 이 나이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뭐 하는 건가 싶었다.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는데 굉장히 억울했다. 마음을 비웠지만 부아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삶의 의지를 다졌다. 혜은이는 “자존감은 결국 내가 채울 수 밖에 없다. 나는 나다. ‘같이 삽시다’도 처음에는 어울리기 힘들었는데 많이 감싸줘서 고맙다”며 “나를 점점 바꾸는 과정이다. 누구 하나 마음 편한 사람이 없다. 양보하고 다 비우고 다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혜은이는 19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데뷔했다. ‘진짜 진짜 좋아해’ ‘뽀뽀뽀뽀’ ‘당신만을 사랑해’ 등 여러 히트곡을 발표했다.

임창정, ‘SNL 코리아 시즌2’ 호스트로 다음달 7일 출격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코미디쇼 ‘SNL 코리아

17회 호스트로 출연 확정

아 시즌2에 임창정이 등장한다.

5월 7일 오후 10시에 공개되는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2’ 17회 호스트로 임창정의 출연이 확정됐다.

데뷔 이래 노래부터 연기·예능까지 각 분야에서 활약한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은 최근 SBS 예능 ‘동상이몽2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

다. 임창정은 앞서 ‘SNL 코리아’ 호스트로 출연해 탁월한 콩트 감각과 코믹 연기의 대가다운 활약을 펼쳐 이번 출연에 대한 기대감도 더하고 있다.

이에 임창정은 “오랜만에 (snl 코리아=) 무대에 다시 서게 되어 기쁘고 설렌다. 그 어느 때보다 시청자분들이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